

순 방

서울 특별 시립 동대문 도서관

「도서관」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오늘 날의 공공도서관의 개념은 지역사회 모든 시민이 자유스러운 자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전한 오락과 여가의 건설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속에 파고 들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충분한 Service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혼잡하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조용하고 안락하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 이용하기 쉽도록 설립된 서울특별시립 동대문도서관은 가장 이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겠다.

연 혁

이제 새로 개관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커다란 연혁을 들 수는 없지만, 초창기 공공도서관 운동을 벌이는 도서관인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개관을 하기까지의 경과를 살펴 보기로 한다.

지난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어린이 놀이터에 아담한 2층 건물로 건립, 개관한 당 도서관은 1966년 7월 12일 민관식씨를 중심으로한 동대문도서관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그 첫 발을 내디뎠다. 처음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도서관을 건립키로 하였으나 시의 예산전입사정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골조공사만을 끝내고 1968년 3월에 일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후 근 2년간 정체상태로 있다가 1970년 2월에 제2차로 예산을 책정받아 5월부터 공사를 다시 착공하여 10월 30일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식 도서관이 준공되었다. 그리고 2월 15일 초대관장으로 김진수씨가 취임하여 개관을 서둘러 지난 3월 31일 개관을 하였다.

본 도서관은 개관과 더불어 시민의 문화전당으로 역사와 세계를 집약한 자료를 확보하여 친근한 시민의 반대로 차원높은 봉사를 목표로 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은 물론 시민의 건전한 교양과 조사연구 그리고 생활정보의 제공 및 레크레이션 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당 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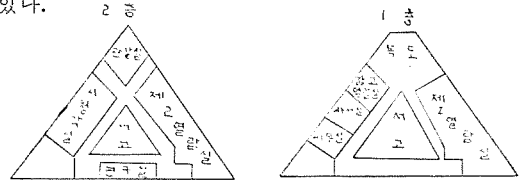
시 설

어린이 놀이터 한 쪽에 총부지 300평에 지하 148평 지상 1,2층 각 223평, 총 594평으로 개관을 한 본 도

서관에서는 열람실, 참고도서 및 정기간행물, 특별연구실, 시청각실 서고 등 17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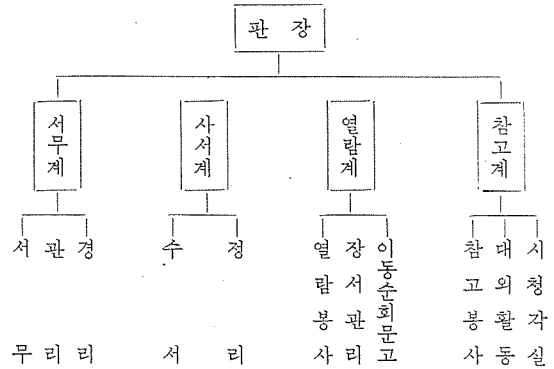
1층에는 여학생 및 성인열람실, 참고 간행물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중·고생 열람실, 시청각실, 연구실 등이 있다.

각 실의 좌석수를 보면 중·고생실 162석, 여학생실 100석, 성인실 62석, 시청각실 80석, 참고·간행물실 24석, 연구실 3석 등 총 431석의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다.



— 기 구 —

당 도서관은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서, 열람



참고, 서무의 4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직도를 보면 위와 같다.

특 징

개관을 한지 불과 2달이 지난 본 도서관의 특징은 순회문고]활동과 「후원위원회」의 활동을 들 수 있겠다.

처음 도서관을 설립할 때에는 도서관주위 지역에 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많아 어린이를 위한 「순회문고」로 개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증도에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도서관이 처음 계획대로 건축이 되지 않아 어린이들에게는 전혀 도서관에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순회문고」활동을 통해서 그 겹을 해소시키기로 결정하고 개관한 날부터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된 여러 나라의 순회문고는 대개 자동차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중로시립도서관이 국내 최초로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문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 도서관에서는 리어카에 도서관을 싣고 4명의 사서들이 지역주민들을 찾아 다닌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중



(지역주민을 찾아 봉사하는 순회문고)

산층이하의 세대를 일일히 방문하여 그 가정의 독서층을 조사하고 순회문고의 의의를 인식시켜 주므로써 문고운영에 큰 도움을 가져왔다.

「순회문고」는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를 선택하여, 이미 조사된 독서층에 알맞는 도서를 1회에 2~3권씩 대출해주고 있는데, 초기에는 책의 망실과 훼손이 염려되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순회문고」활동에 참여하는 정성은 놀랄 정도라고 한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찾아오는 순회문고를 기다리기에 지쳐 동단위로 주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는 문고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본 도서관에서는 창신 아파트를 비롯한 5,6개 지역에 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문고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45일간에 걸친 순회문고의 활동실적을 보면

3,300세대에게 2~3권의 도서를 5~6회씩 대출해주고 반납을 받았는데 연도서대출수를 잡아보면 약 5만여권이 유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 후원위원회를 들 수 있다.

지난 해 8월 민관식씨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후원위원회는 초창기 공공도서관을 지도, 육성,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된 구미제국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육성을 위해 지역주민이 도서관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도서관과 주민간에 유대가 잘 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번이 두번째로서 동대문도서관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물질양면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본 도서관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공공도서관에서도 이 제도에 발 맞추어 보다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계 획—

이제 한참 정리중에 있는 도서관이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차치하기로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에 3층을 새로 건립하기로 하였고 도서관내 한국문제연구자료실을 설치하여 한국관계의 모든 문헌을 수집정리하여 한국문제 연구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미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청각 자료실과 독서회의 운영을 보다 강화하여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주민을 위하여,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도서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晟)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學術雜誌豫約購讀에 關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學術雜誌 豫約購讀에 關한限 世界の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賣下가 顯하는 대로 순접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部와 單行本部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 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 하여서도 빠른 情報을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賣下께서 아직도 匪사와 關聯을 맞지 않고 계시다면 곧 睿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을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어 말씀드린 以外の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폰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号
電話 (74) 4 8 5 5 · (75) 4 1 5 5

